

“부르심”

사무엘상 3:1-11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증으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 할 때 였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람은 사무엘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말씀은 놀랍게도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와 그의 집안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삼상 3:1)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이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고갈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약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될때 까지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고집,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오직 말씀의 능력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말씀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온전한 헌신과 신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교만해서 변질되면, 결국 그 스스로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항상 겸손해야 하고, 또 기도 와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당시 사무엘은 아마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공식 직책이 없는, 제사장을 수종 드는 사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 어린 사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삼상 3:4-5)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깨닫고, 다음에 다시 부르시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이것이 주의 종의 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삼상 3:12-13)

하나님께서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첫번째 말씀은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을 키워주고 사랑해 준 영적 아버지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리더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삼상 3:14)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엘리는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40 년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식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징계하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에 긴 영적인 밤이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큰 불행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삼상 2:6-7)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주인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순서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했지, ‘범사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서 조립할 때 순서가 잘못되면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몇배나 더 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허송하게 됩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순서를 명확히 이해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삼상 3:15-17)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찾아가

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가 사무엘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리 크게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삼상 3:18)

자기 집에 대한 멸망과 저주의 예언을 들었다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며 너무도 가볍게 반응합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서 경고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엘리의 사역은 끝이 나고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삼상 3:19-20)

사무엘의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예언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운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가볍게 여깁니다. 나에게도 엘리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영적 경고를 듣고도 나의 완악함과 무뎠던 신앙으로 인해 그것을 소홀히 대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물건을 구입해서 조립할 때, 순서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2(밑줄부분)을 함께 읽어 보며,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조립해 나갈 때에도, 어떤 순서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